



iLED

Tuesday News

2015-8호

2015. 8. 25

편집인 : 서승일

박태정 선생님 저녁 식사



iLED 연구실에서는 올해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하고 계신 **박태정**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박태정 선생님께서는 2015년 하반기 10개 대학에서 개설될 **KMOOC** 사업을 주도하면서 교육공학의 연구지평을 넓혀가고 있으십니다. 앞으로 연구실의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대 김종원 교수 미팅

- S³CPS 적용



S³CPS 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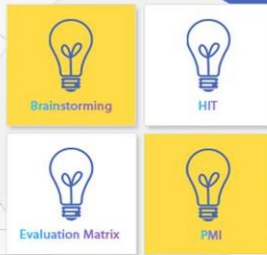
LECTURE INFO

MY INFO

Lecture&Team Information

강의명(Course)	창의적선택
팀명(Team)	팀정보없음
팀원(Member)	팀원정보없음
팀장(Team Leader)	팀장정보없음
상태(Status)	세팅중

Logout



*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S³CPS는 Treffinger와 동료들(2000)이 제안한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CPS Version 6.1™)을 활용하여 각 단계마다 발생적 사고를 지원하는 사고도구와 수렴적 사고를 지원하는 사고도구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창의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용으로 개발된 온라인 지원시스템입니다.

S³CPS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iLED 연구실과 CTL에서 공동 관리하고 있는 교육 소프트웨어입니다. 2015년 1학기 공과대학 기계항공학부 김종원 교수님이 담당하는 <설계, 제조 및 실습>이라는 과목에서 S³CPS를 활용했습니다. 2학기에는 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욱 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교수설계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장선영 교수님 특강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장선영 교수님**께서 교육공학 전공 석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연구방법**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다양한 특강이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포럼



임철일 교수님께서서는 지난 몇 달 동안 공과대, 미대, 치의대 등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서울대 미래교육에 대한 포럼에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서울대가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곧 결과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4회 BK 미래교육디자인 세미나



제 4회 미래교육디자인 학술대회가 2015년 8월 15일 열렸습니다. iLED 연구실 학생들은 1개의 구두발표와 2개의 포스터 발표를 실시했습니다. **한송이 선생님**께서 교육공학 전공대표로 **<대학강좌에서 플립러닝을 위한 연계전략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 4회 BK 미래교육디자인 세미나



또한 서승일, 이찬미 선생님이 <공학교육에서 창의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지원 시스템 적용과 효과에 관한 연구>로 포스터 발표를 했습니다. 이주경, 장수, 이선연, 이은영 선생님이 <암 환자의 긍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건강코치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로 포스터 발표를 하셨습니다.

졸업생 선생님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인 소개를 부탁 드려도 될까요?



졸업하기 전
저의 모습..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2월에 iLED에서 석사로 졸업 한 박정은입니다. 3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201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교육공학 전공으로 입학하게 되어 iLED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입학 후에 ‘감성’와 ‘학습 동기’, ‘자기조절학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박태정 박사님과 함께 감성조절 전략과 자기조절 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지현 교수님과 함께 ‘뇌 기반 학습자 분석’이라는 수업의 결과물을 발전시켜, ‘뇌과학 기반의 교수설계 전략의 탐색’이라는 논문을 한국교육공학회에 투고하여 석사 생으로는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암극복 건강코치 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졸업 하기 전까지 건강 코치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살펴보니 주로 이러닝과 관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CTL에 근무하면서도 학교의 교수학습플랫폼 관리를 맡고 주로 문제점들을 상담해주고 eTL 활용 워크숍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교수학습강의동영상 제작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멀티미디어 자료의 효과적인 구성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졸업 직전에는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실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맡아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이러닝 학습 구성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ICER 2013의 준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회계와 행정, 홈페이지 구축과 같은 일을 담당하면서, 큰 행사를 기획하게 될 때의 어려움을 뼈 속 깊이 느끼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입학 당시에는 ‘복싱’을 한다고, 소개하게 되어서 계속 복싱 선수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점점 다크서클이 가득 내려 온 힘이 잔뜩 빠진 선수로 졸업하게 되어 지금까지도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이팅 넘치는 옛날로 돌아가기 위하여 다시 활발하게 취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졸업생 선생님 인터뷰



Q 졸업 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2015년 2월 졸업 이후 저의 연구실의 선배님이신 황인화 선생님의 소개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L&D본부에 입사하여, 전문 컨설턴트로 성장하기 위하여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총 3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주로 교육과정수립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역을 동분서주하며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졸업 직후에는 횡성에 있는 대학교 컨설팅을 맡아, 추운 날씨에 코가 빨개지도록 움직이며 NCS기반의 교육과정 수립이라는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선·해양쪽의 컨설팅을 맡으며, 국내 최고의 기업에 근무하시는 중공업 엔지니어 분들과 NCS기반 인력양성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하여 평생 걸쳐 몇 번 가보지 못한 장소인 거제도와 부산을 매 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는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의 인재육성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출근버스를 타고 남양연구소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였는데, 막상 실전에 투입되고 나니 이론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선배 컨설턴트 분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iLED에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현실적으로 경험했던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효과적으로 보고서를 구상하는 법과 내용을 구성할 때에 상대방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은 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항상 임철일 교수님과 많은 선배님들이 지적해주시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계속 컷가에 맴돌아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그 경험이 몸에서 우러나와 저 자신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후배 분들에게도 꼭 프로젝트 안에서 보물들을 많이 찾아 모아 두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조선해양프로젝트
워크숍 中..



숙소에서 바라 본 거제도의 전경과
자연산 회와 전복장 모습



NEWS



◆ 연구실 회의

- 일시: 2015년 9월 1일(화), 오후 2시
- 장소: 대세미나실(예정)

◆ 한국교육학회 부산 학술대회

- 일시: 2015년 8월 28일~29일
- 장소: 부산대학교

◆ 2015 ICER 학회

- 일시: 2015년 10월 14일~16일